

사랑

장만영 (1914-1975)

서울 어느 뒷골목
번지 없는 주소엔들 어떠랴,
조그만 방이나 하나 얻고
순아 우리 단둘이 살자.

숨바꼭질 하던
어릴 적 그때와 같이
아무도 모르게
꼬옹 꿈 숨어서 산들 어떠랴,
순아 우리 단둘이 살자.

아무도 찾아 주는 이 없던 들 어떠랴,
낮에는 햇빛이
밤에는 달빛이
가난한 우리 들창을 비춰줄게다,
순아 우리 단둘이 살자.

깊은 산 바위 틈
둥지 속 산 비둘기처럼
나는 너를 믿고
너는 나를 의지하며
순아 우리 단둘이 살자.